

농협, 드론 띄우고 700억 자금 지원



▲긴급방역대책 화상회의(농협 제공)

무이자자금 700억 및 방역용품 5억 투입

농협(회장 강호동)은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전국 지역본부 및 축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설 명절 대비 긴급 방역대책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가축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범농협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회의에서 강호동 회장은 설 명절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의

확산 위험을 경고하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역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3가지 핵심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첫째, 농협은 기존 소독 차량 외에도 전국 농·축협이 보유한 드론과 광역방제기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1,000대 규모의 방역 장비를 운용한다. 이를 통해 축사

주변 및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둘째, 농협은 정부가 지정한 '축산환경·소독의 날' 운영에 발 맞춰 설 명절 전후 이틀씩을 '집중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범농협 가축질병 방제단을 통해 농장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 소독과 방역 수칙 준수를 독려한다.

이는 명절 기간 사람과 차량 이동에 따른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셋째, 현장의 방역 실행력을 높

이기 위해 전국 축산농가 일제 소독 지원용 무이자자금 70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또한 생석회, 소독약품 등 5억원 상당의 긴급 방역용품을 현장에 즉시 보급하여 방역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 밖에도 농협은 가축질병 발생 농가를 위해 상호금융 대출금 기한 연기 및 납입 유예, 재해특례 신용보증 등 다양한 금융 지원 대책을 병행하며 피해 복구에도 힘을 보탬 계획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가축 방역은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인 만큼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설 연휴 기간 가축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가축질병 예방 및 민간 통합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농협과 함께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취약 농가 소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겨울 이후 조류인플루엔자(AI) 42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10건 등이 발생하여 전국적인 방역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축산물 원패스, 정부 통합인증 'Any-ID'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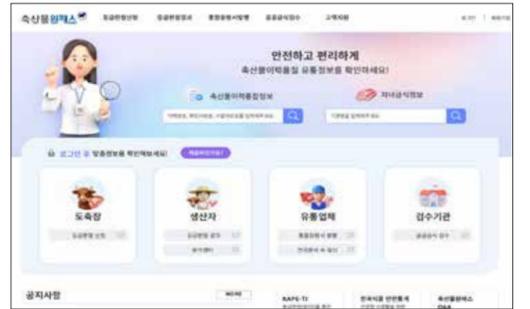
민간·공공 인증수단 활용...로그인 절차 간소화해 접근성 강화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물 거래에 필요한 각종 행정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축산물 원패스' 누리집에 정부 통합인증 서비스인 '애니 아이디(Any-ID)'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애니 아이디'는 한 번의 인증으로 여러 공공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 기반 서비스다. 축산물 원패스 이용자는 기존 아이디·비밀번호 방식 외에도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금융인증서 등) △공공인증서 등 다양한 민간·공공 인증수단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로그인할 수 있다.

특히 정부 통합 로그인 기능을 통해 공공 웹사이트 간 이동 시 반복적인 로그인 절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축산물 원패스 누리집 메인화면

2025년 기능 개선 사업을 통해 애니 아이디 시스템을 구축하고, 축산물 원패스 누리집 로그인 화면에 해당 기능을 적용했다.

또한 다양한 민간 인증수단이 안정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기술적 점검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최적화를 통해 보다 신뢰받는 디지털 행정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애니 아이디 도입은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해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축산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지속히 마무리해 고품질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imes.com

식탁 위의 힘! 동계스포츠 시즌 한돈 활용법

실내 생활 늘며 체력·컨디션 관리 중요성 부각

동계 스포츠의 열기가 한창이다.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 이후 컬링과 스키, 쇼트트랙 등 겨울 종목이 연일 화제를 모으며, 늦은 새벽까지 경기를 시청하거나 연속 경기 관람으로 하루를 보내는 풍경도 낯설지 않다.

특히 겨울철에는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만큼, 일상 식탁에서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양 전문가들은 이 시기 필수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체력 유지와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장시간 경기 관람이나 실내 생활이 이어질수록 조리 부담은 줄이면서도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다.

이 같은 흐름은 해외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1월, 미국 보건당국은 식생활 권고를 통해 단백질 중심의 균형 잡힌 식단 구성을 강조하며 활동량 변화에 맞춘 영양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모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인체에 필수적인



▲한돈자조금제공

영양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한돈은 겨울철 식단 관리에 활용도가 높은 식재료로 주목된다. 한돈에는 단백질을 비롯해 비타민 B1(티아민), 아연, 셀레늄 등 피로회복과 면역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고르게 함유돼 있다. 특히 비타민 B1은 체내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어, 활동량이 줄고 무기력해지기 쉬운 계절에 매우 적합하다는 평가다.

양육용 배합사료는 가축을 키울 때 쓰는, 여러 가지 원료를 미리 적정 비율로 섞어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완성 사료를 말한다. 도는 사료 운송 차량이 제조시설과 농장을 반복 출입하면서 바이러스 전파 매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료 운송단계에서부터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 차단 방역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사료 운송 차량 소독 이행 여부 ▲차

도내 양축용 배합사료 제조업체 긴급 소독관리 점검

경기도가 양축용 배합사료 제조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용 사료제조업체의 방역관련 준수사항 및 시설을 점검했다.

올해 들어 안성(1.23.)과 포천(1.24., 2.6.), 화성(2.7.)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달아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이다. 점검은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으며, 평택 4개, 안성 3개, 이천 3개, 양주·용인 각 1개, 안성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양축용 배합사료는 가축을 키울 때 쓰는, 여러 가지 원료를 미리 적정 비율로 섞어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완성 사료를 말한다. 도는 사료 운송 차량이 제조시설과 농장을 반복 출입하면서 바이러스 전파 매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료 운송단계에서부터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 차단 방역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사료 운송 차량 소독 이행 여부 ▲차

량 내부·하부 소독 상태 ▲소독 시설 정상 운영 여부 등 ASF 전파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소독 이행, 적정 소독제 사용, 출입 통제 등 주요 방역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방역 관리 수준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2개 업체에서 소독설비가 작동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

어 현장에서 즉시 지도·개선 조치를 실시했으며 추가적인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신광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방역의 작은 빈틈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농가뿐만 아니라 사료 제조와 운송 과정까지 전 단계에서 철저한 방역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료운송차량소독(경기도청제공)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1단계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농장 진입로 폭 2m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

- 1주일 간격 반복 도포, 비·눈 내린 후 즉시 재도포
- 도포된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제 살포 금지

2단계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 소독약은 용법용량의 권장 희석배수 준수

- 농장 내부, 사료빈·퇴비사·출하대 주변 매일 청소·소독
- 야생조류류 유인 요소(사료·폐사·왕겨 등) 방지 금지

3단계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세척수·물(세척조)을 이용하여 신발(장화)에 붙은 유기물 제거 후, 신발소독조 사용

※ 신발소독조 소독약은 2~3일 간격 교체

- 지정된 관리자 외 축사 출입 최대한 통제
- 축사 출입시 손 소독, 방역복·위생장갑·전용장화 착용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청소·소독 순서
① 청소·세척 천장→벽→바닥 순
② 건조
③ 소독약 살포 천장→벽→바닥 순

- 사람·가축에 직접적인 소독제 분사 금지
-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소독 철저 및 외부 반출 금지

농장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가축질병 피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